

함평군수 보선 열기 ‘후끈’

민주당 7명·무소속 2명 후보만 9명 달해 일부 민주 후보 ‘탈당 검토’ 등 과열 조짐

오는 4월 15일 제21대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함평군수 보궐선거에도 9명의 예비후보군이 출마 준비를 하는 등 분위기가 점차 달아오르고 있다.

13일 선관위와 지역정가 등에 따르면 함평군수 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등에서 9명이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출마 기자회견과 출판기념회 등이 잇따르고 있다.

김성찬 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의장은 오는 17일 함평 5일시장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김 부의장은 “농민과 소상공인, 서민을

상징하는 민생의 현장인 5일시장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며 “열린 마음으로 통합과 소통을 이루어 내고 군민 곁에서 늘 함께 하겠다는 약속과 다짐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소속인 정철희 함평군의회 의장도 지난해 12월 20일 함평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함평군수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 의장은 “민주당 중앙당의 후보 적격심사가 별다른 이유도 없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데다, 경선 룰도 공정하지 않아 민심의 뜻에 따라 탈당도 심각하게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이상의 민주당 전남도당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7일 출판기념회를 개최했으며, 임용수 민주당 전남도의원, 김성호 전남남도의원, 유재기 한국노벨재단 사무총장도 출마 준비를 하고 있다.

정문호 민주당 중앙당 인권위 부위원장은 “함평군수 보궐선거 분위기가 과열되고 있어 2월 2일 예비후보 등록 후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무소속 후보군으로는 신경선 전 함평경찰서 정보과장장 정두숙 전 KBS 프로듀서가 거론되고 있다.

이윤행 전 함평군수는 취임 11개월 만인 지난해 5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이 확정돼 낙마했다. /함평·윤예중 기자



강순팔 화순군의회 의장을 포함한 화순군의회 8명은 13일 군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병원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김병원, 본격 ‘세몰이’ ...지방의원들 지지선언

21대 총선 나주·화순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원 예비후보가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섰다.

강순팔 화순군의회 의장을 포함한 화순군의회 8명은 13일 군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병원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지지선언에는 민주당 소속 전체 군의원 10명 중 8명이 함께했다.

군의원들은 “나주와 화순은 혁신도시

건설과 생물의약 산업벨트 구축으로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다”며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역경제를 이끌어 나갈 역량을 갖춘 새로운 리더십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김 예비후보는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농정 패트너’로서 예비후보 가운데 유일한 경제전문가이자 대한민국 대표 경영인”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이제 지역

민들은 일자리와 새로운 부를 창출해 낼 수 있는 리더를 원한다”고 주장했다.

군의원들은 “김 예비후보는 국내 재계 9위의 농협을 이끌어 오면서 끊임없는 농협개혁을 통해 농민과 서민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농협중앙회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3,000만원대에 불과했던 농가소득을 5,000만원 대로 급성장시킨 것만 보더라도 리더십이 증명된다”고 강조했다. /정근산 기자

4·15 총선 정치 신인에 듣는다

②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갑 예비후보



“세상을 잇는 젊은 정치, 존재감을 상실한 광주 정치 복원, 윤영덕이 해내겠습니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갑 예비후보가 4·15총선에 도전 출사표다.

윤 예비후보는 조선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참여자치21 운영위원, 시민플랫폼 ‘나들’ 이사 등 시민사회활동을 이어 왔다.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대위 정책본부

는 의무가 있고, 중앙과 지역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책임이 있다”며 “중앙과 지역을 잇고, 사람과 세대를 잇고, 골목과 골목을 이어서 웃음이 꽃피는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 예비후보는 공약으로 ▲차세대 전력에너지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구축 ▲문화콘텐츠·ICT융복합문화산업단지 조성 ▲한국기초과학지원센터와 연계한 바이오헬스 광역권 인프라 구축 ▲백운광장 청년문화·산업복합단지 구축 ▲사회적경제 혁신센터 유지 등

“젊은 정치·광주 정치 복원 앞장”

조선대 총학회장 출신...미래 먹거리·일자리 창출 최선

에서 광주·전남지역 공약을 담당해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지냈다.

윤 예비후보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제대로 된 진정한 개혁세력으로의 세대교체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며 “지역현안을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국정수행 능력을 검증받은 사람을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켜야 하

를 약속했다.

그는 “지역주민의 가장 큰 관심사인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뒀다”며 “동남갑 지역을 ‘광주·전남 미래혁신 중심도시’로 만들어 미래 성장동력을 키워내고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지역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윤 예비후보는 경선 전략으로 “정치 신인의 패기와 진정성으로 승부하겠다”며 “새 정치와 지역변화를 염원하는 분들과 함께 낮은 자세로 경정하며

초심을 잃지 않고 묵묵하게 한 걸음씩 내딛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대가 요구하는 삶에 당당하게 임했고, 다양한 시민활동을 통해 지역현안을 고민하고 실천해왔다”며 “다양한 사람들과 새로운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인맥을 바탕으로 중앙과 지역을 이어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알고 싶다”고 강조했다. /황애란 기자

‘DJ 3남’ 김홍걸 “4·15총선 출마”

전남도 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김대중 전 대통령(DJ) 삼남인 김홍걸 민중화해협력법국민연합회 상임공동의장이 4년 전 총선에서 당의 출마 제안을 고사했던 것과 달리 올해 4·15 총선에서는 당의 결정에 따라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공동의장은 13일 광주지역 정치부장단과 만난 자리에서 “지역구 선택이나 비례대표 출마 등은 당에서 순리대로 정리가 될 것이다”며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당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사실상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이자 김 공동의장은 현재 경기 일산과 광주 동남을, 목포 등지에서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후보 경쟁력 여론조사설 등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김 의장은 “국회의원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의원이 되면 아버지 유업을 이어외교나 평화통일에 역할을 하는 것이 목적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젊은 세대들에게는 많이 잊혀 가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사상과 철학을 계승·발전시키고 홍보하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한민족 공존과 한반도 평화 방향을 제시한 ‘희망을 향한 반걸음’이란 책을 출간한 김 의장은 의원이 되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구상을 현실화시키는 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성수 기자

전남도는 설을 맞아 제수용품 및 수산물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한 수산물과 천일염의 원산지 둔갑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5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는 전남도와 시·군은 물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이 22개 시·군을 목표로, 여수권, 완도권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이뤄진다.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 재래시장, 음식점을 대상으로 거짓표시, 미표시, 위장·혼동표시에 대해 집중 실시한다.

설을 앞두고 명태, 조기 등 주요 성수품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늘 것으로 예상돼 명절 제수용 및 선물세트 수산물과, 원산지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농·축·수산물 등 품목, 참돔·가리비·홍어·명태 등 일반산 수산물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김영민 기자

www.okimscom.com

모두가 바라보는

별이 되도록!

별 하나, 그리고 넓은 들판...
 이 그림을 자세히 보아 두셨다가,
 언젠가 당신이 아프리카사막을 여행하실 때,
 이와 똑같은 풍경이 있으면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때쯤이면,
 당신과 당신의 회사는 이미 커다란 별이 되어 있겠군요.
 오킴앤커뮤니케이션이 당신과 함께 하니깐요.

「오킴앤커뮤니케이션」은 광고기획 및 제작, 매체기획 및 구매, 온라인광고대행, 옥외광고, 프로모션, 마케팅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주)오킴앤커뮤니케이션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97-7 에이스테크타워2차 802호 T. 02)3445-3224, F. 02)3445-3216